

47. 현장보조 사무직에서 발생한 전신성홍반성낭창과 다발성신경병증

성별 여 **나이** 23세 **직종** 사무직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장○○는 2004년 10월 자동차부품사업장의 품질관리 부서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사무 및 공정지원업무를 하다가 2005년 2월 대학병원에서 전신성홍반성 낭창 및 단발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환경: 근로자는 2004년 10월 18일 품질관리 부서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사무 및 열처리 공정지원업무를 하였다. 사업장은 자동차부품인 크립을 열처리하여 생산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장○○의 주요 업무는 사무실에서 납품서류를 챙기는 일이었다. 하지만 현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현장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는데, 2004년 12월부터는 현장에서 열처리 후 세척조에서 나오는 제품 중 콘베어 벨트에 붙어 있는 것을 쇠갈고리로 떨어내는 작업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(약 50분) 지원하였다. 2005년 1월 중순부터는 약 열흘간 매일 하루 약 6시간 동안 오스클렘프 제품의 불량선별 작업을 하였는데, 이때 먼지와 가루가 날렸다고 하였다.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광물성오일미스트(0.11-0.35 mg/m³), 광물성분진(0.62 mg/m³)이었다.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다크로는 glycol 류의 유기용제 30-40%와 아연분말 50-60%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과 무수크롬산이 6-6.5%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는 평소 건강했으며 과거 전신성홍반성낭창 등의 면역질환과 관련된 병력이 없었고, 비흡연자이며 음주는 소량 한다고 했다. 2005년 1월에 목이 아파 H 병원을 방문하여 경부임파선염으로 진단 받아 치료하던 중 1월 23일경 갑자기 얼굴에 홍반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발생한 후, 이후 손과 다리에도 홍반이 생기고 왼쪽 하지의 감각이 없어지는 등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. 2005년 2월 22일경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전신성홍반성낭창과 좌측 비골신경의 단발성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.

4. 결론: 근로자 장○○의 전신성홍반성낭창과 단발성 신경염은

- ① 대동금속(주)에서 사무작업 및 현장 보조작업을 수행하다가 발병되었는데,
- ② 현장보조작업 수행 중 작업관련성 유해요인인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,
- ③ 현장보조작업의 기간이 열흘 정도로 노출기간이 매우 짧아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